

행복한 금요 편지

아름다운 바보가 되자

배영기¹⁾


송의여자대학교 명예교수

민서야! 오늘은 유난히 너가 보고 싶은 마음이 자꾸만 솟구친다. 열 세 살의 어린 나이에 혈혈단신으로 이억만리 프랑스로 유학을 떠난지 만 2년이 되었다. 세계 여러 나라의 학생들이 와서 공부하는 중학교에 입학하여 적응하는 과정이 얼마나 건디기 어려웠을까! 그 고통을 이겨내기 위하여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얼마나 많이 울고 또 울었던가, 할머니도 너의 외로운 마음을 달래느라 많이도 울었다. 엄마와 아빠를 대신하여 할머니가 새벽녘에 2~3시간씩 힐링폰을 하고나면 날이 밝아와 밤잠을 설치기가 얼마나 많은 나날이었던가.

그래도 할머니는 민서가 영어와 중국어를 다른 학생들보다 월등히 잘 한다고 인정받아 2학년으로 월반하였다는 기쁜 소식에 춤추고 싶을 정도로 힘이 솟아난다면서 싱글벙글 자랑하는 말을 들을 때면 할아버지도 덩달아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아 발걸음이 가벼워지더라.

할아버지는 연금을 받아 초절약으로 생활한 후에 남은 돈을 모아 민서 학자금을 보내는 일이 가장 보람 있고 즐거운 일 중에 하나로 여기며 산다. 돈을 이렇게 기분 좋게 써 본 일은 처음이다.

1) 배영기 부위원장은 송의여자대학교 명예교수를 직임하였으며, 한선행복포럼 부위원장으로도 활동하고 계십니다.



민서야! 돌이켜보면 할아버지도 60여년 전 네 나이 때 경북 영덕군 지품면 오천동에서 열한 살 위인 형님의 손목을 잡고 서울로 왔단다. 어매(어머니의 사투리말)가 그리워 밤낮으로 남쪽 하늘을 쳐다보면서 남몰래 울기도 무척 울었단다. 유난히 둥근 달이 뜨는 밤이면 더욱 그리움에 못 견디어 몸부림치며 울었단다. 지금의 민서 심정을 할아버지는 이해하고도 남는다. 그 때 나는 자취방 벽에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고 써 붙여 놓았다. 그리고 스무 살이 지날 때 즈음, 책 속에서 '아름다운 바보가 되자'를 읽고 나서 밑줄을 쳤다. 나의 삶의 지표로 생각하는 모멘텀이 되었다. 오늘 내 삶의 뿌리도 이 지표에 두었기에 이만큼 아름다우면서 행복한 삶을 꾸리게 되었다. 내가 존경하는 함석헌 선생님(결혼 주례로 모심)의 아호도 '바보새'였고, 김수환 추기경님의 아호도 '바보'로 자화상에 그려놓으시고 선종하시었다.

민서야! play와 pray를 잘 조화시켜 주길 바란다. 그리고 full과 fool은 너를 일시켜 세우는 기둥이 되리라고 충고하면서 할아버지는 이 편지를 마무리한다.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

2016. 3. 16 새벽녘에
할아버지 씀

한선행복포럼에서는 '행복한 금요편지'이란 에세이를 통해 행복의 가치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당신의 소중한 원고를 기다리겠습니다. 행복을 함께 나누어 주세요!